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릴때는 약정금리로!
■고속자금, 주택자금, 경조사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080-023-4200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월 3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새해 벽두부터 국민의 관심이 총선에 쏠려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형태는 집권을 위한 모의와 이합집산으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느낌이 든다. 정치는 간데없고 선거만 판치는 현실에서 부처님이 설한 정치윤리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치윤리

바른 정치란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고, 이기지 않고 이기게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슬프게하지 않고, 바른 법을 가지고 정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않된다. 〈상응부 경전〉

평화로운 국토에는 재난이 사라지고 백성들은 기쁨에 넘쳐, 품안의 어린애를 어르며 문단속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요. 〈장부경전〉

대자(大慈)란 모든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고 대비(大悲)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일이다. 〈대지도론〉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포위하여 독재자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사람으로 아시오. 〈숫타니파타〉

밧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가지고 상호간에 의사를 자유롭게 나눈다면 온나라 안이 서로 화목하여 갈수록 흥왕할 것이다. 〈장아함유행경〉

왕이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왕이 바르지 않을 때 그 관료들도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타카〉

백성들을 개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하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않으면 안된다. 〈금광명경 사천왕호국품〉

다만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유행경〉

정사를 아는 자는 한 악인을 버림으로써 한 집을 이루고, 한 집을 버림으로써 한 고을을 이루며, 정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민물(民物)이 그 함바를 잃어서 천하가 원망하고 송사한다. 〈아함경〉

왕 중의 왕 전륜왕은 법에 의지하여 덕을 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므로 모든 악으로부터 항복을 받습니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정치지도자는 자심(慈心)을 일으키고 혜지(慧智)로 관찰해 사실과 때와 도리에 의지하며 부드러운 말과 자비로운 마음에 의지해야 합니다. 〈니건자경〉

국가의 위기나 멸망의 원인은 함부로 시류에 영합하려는 데에 있다. 시류의 평판이 좋다고해서 여기에 귀기울이게 되면 결코 참된 현자(유능한 정치가)를 얻을 수 없다. 참된 현자를 얻으려면 그 사람됨을 바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도원 · 정법안장〉

관련기사 3면

사찰도 '물비상' 19면
대장경 전산화 각국 현황 6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대통령 공개사과 촉구

"YS 국방부 교회 예배 종교 차별·국민 화합 저해"

교계 20여단체 규탄 성명…조계종 진상조사반 구성

김영삼 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예배참석에 대해 교계가 대통령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통령은 일요일인 지난 21일 부인 손명순여사, 권영해 안기부장, 이양호 국방장관 등과 함께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3대 종교가 상징적으로 모여 군종교활동을 관장하고 있는 국방부 종교센타를 방문, 교회에서만 예배를 본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김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 행사전날인 20일(토요일) 저녁 일직 계통으로 기독교 장병들에게 '대통령 참석 예배' 행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바람에 일직과 당직 근무가 조정, 기독교인을 제외한 다른 종교인들이 일요정기법회 및 미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한 이날 대통령 경호관계로 법회와 미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많은 신자들이 출입을 통제당해 신앙의 자유마저 침해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태고종 전국신도회, 한불청, 불교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신도회, 부천시불교연합회, 경불련 등 교계의 각 시민단체가 연일 김영삼대통령의 편향된 종교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실천승가회,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동국대 석림회, 전승련, 대불청, 대불련등 불교계 6개 단체가 연대, 조계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민원접수창구에 성명서를 접수시켰다. 6개단체 대표단은 김대통령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신한국당 불신임운동을 전개키로 해 4.11총선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에게도 신앙의 자유는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3대 종교의 성전이 공존하는 국방부에서 대통령이 특정종교에서만 공개적으로 예배를 보는 것은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성명을 통해 "17사단 훼불사건, 대통령 청와대 예배건, 공무원안식년 휴가제도도입 시도건, 부활절 검정고시 연기사건 등 계속되는 편향적 종교정책은 대통령의 권력남용의 소산이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독교장병을 격려하는 모습을 지켜본 김모장병은 "기독교신자가 아닌 일반 사병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위축돼 있다"고 전하고, "군 내의 화합을 도출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군중앙성당의 한 간부는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이 편향된 사고를 지니고 있으니 앞으로 이나라가 어떻게될지 여간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종교계의 반응에 대해 당초 청와대 윤여준 대변인은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교파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교회를 찾아 예배를 할 것"이라는게 김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즉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경솔한 행사기획'이었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민정비서실은 "통치권자는 초종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론동향 보고서를 올렸다. 또한 4.11 총선을 의식, 문체부차관과 불교정치인들을 교계에 보내 불교계 감정을 무마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5일 현재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23일 특별진상조사반을 구성, 김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예배참석에 대한 경위조사에 들어간데 이어 김대통령의 공개사과가 없을 경우 전국적으로 집권당 지지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필선 기자〉

◇ 실천승가회 등 6개 단체 대표단이 지난 24일 청와대 항의방문을 위해 진출하다 안국 경찰서 앞에서 전경 1개 소대에 의해 저지 당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승가대 김포학사 재검토

소음측정등 환경영향평가따라 이전추진

〈속보〉 중앙승가대학(이사장 월주)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소음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김포학사부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중앙승가대학 대책위로부터 지난 18, 19일 양일간 측정한 김포학사 소음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전문 소음측정 용역업체에 의뢰, 김포학사에 대한 소음을 실측키로 했다. 〈관련기사 62호 19면〉

중앙승가대학은 이에따라 최소한 6개월여에 걸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김포학사 이전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96년도 법인회 예산을 80억5천여만원, 학교 13억7천6백여만원으로 심의편성했다.

유니세프 內 불교인 클럽 결성

미얀마·泰등 불교국 어린이 구호 활동

추진위원장 제원스님…초파일경 공식 출범

한국불교가 전 세계 불교국들의 어린이 구호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모여 어린이들의 생존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 연합아동기구(UNICF) 한국위원회에 불교인 클럽을 결성하기로 한 것.

제원스님(길음복지관장) 오원스님(창보사 주지) 현진스님(여의도 포교원장) 계환스님(동국대 교수)등 스님과 이복전교장(동작국교) 이선미씨(BBS 아나운서부장) 등 10여명은 구랍 14일 하림각에서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창립준비작업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원스님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불교국가들의 어린이 구호, 영양, 예방접종 등의 구호활동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5월 부처님 오신날에 맞춰 공식출범할 예정인 불교인 클럽은 창립기념으로 불교관련 카드를 제작 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교국가들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교인 클럽은 모금활동을 비롯 '사랑의 걷기대회' '사진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추진위원들은 오는 28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불교국인 미얀마를 방문, 불우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한뒤 본격적인 어린이 구호활동을 시작한다.